안동권씨 추밀공파 정간공 추향제 봉행

2018년 11월 16일(음 10.9) 11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정간공(휘 희) 묘소에서 권병돈 종회장 주관으로 참제원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향제가 열렸다. 이날 제례 주관은 매헌공 종회에서 관장하였고 향사는 초헌관 권순호, 아헌관 권혁주, 종헌관 권태수, 축관 권용주, 집례 권공범으로 분정하였다.

추향제 봉행 후에는 정기총회도 열려 모든 결산안과 예산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종회를 마친 후 서울 수도권뿐 아니라 강원도, 전라도 등 멀리서 온 모든 참가자들은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하며 추향제와 종회 행사를 마무리했다.

매헌공 고문 권용주

화산부원군 차자(次子) 목사공 양(養) 추향제 봉행

2018년 11월11일 일요일 경기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616-3의 목사공 제실에서는 추향제를 제(諸)자손 80여명이 모여 성대히 봉행하였다. 초헌관 종손 권혁찬(權赫贊), 아헌관 화산부원군 고문 권정택(權貞澤), 종헌관 권태범(權泰範), 집례 권태균(權泰均), 축관 권영관(權寧寬) 등으로 각각 분정하였다.

대종회부회장 권정택

권기갑 부회장 종묘추향대제 아헌관 봉행

권기갑 대종회 부회장은 지난 11월 3일(토)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봉행된 2018년 종묘추향대제에서 영녕전 제6실 아헌관으로 봉행했다. 영녕전 제6실은 문종대왕과 현덕왕후(안동권씨)를 제향하고 있다. 현덕왕후는 단종의 어머니이다. 단종은 1698년 숙종 24년에 복위되면서 곧바로 영녕전에 봉안되었다. 단종을 모시는 제실은 문종대왕의 바로 옆 제7실이다.

영녕전은 중앙 4칸 좌측부터 목조, 익조, 환조, 도조 순으로 모셨고, 서익실(西翼室)은 5실에서 10실까지 배치되어 있으며 동익실(東翼室)은 11실에서 16실이 자리한다. 왕 16위와 왕비 18위 등 모두 34위가 봉안되어 있다. 안동권씨 대종회에서는 매년 종묘춘추향대제 때마다 영녕전 제6실 아헌관으로 분정되어 봉행에 참여하고 있다.

편집국장 권행완

별정공파 종회 선조 유적답사 및 한마음대회

안동권씨 별장공파종회(회장 권순협)는 10월 12일 오전 8시 선조 유적지 답사를 위해 120여명의 회원이 전세버스 3대를 이용하여 안동시청에서 출발하여 충북 음성군 생극면 방축리에 위치한 충북도 기념물 32호인 양촌 권근(16세)과 지제공 권제(17세) 및 소한당 권람(18세) 3대 묘소를 참배하였다. 권경웅씨는 3대 묘소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참배를 마치고 점심식사를 한 후 오후 4시 20분경에는 고양시 행주산성과 충장사를 참배하고 저녁 9시경에서야 안동에 도착했다. 권순창 사무국장이 유적지 답사를 인솔했으며 권택기 전 국회의원, 권종락 전 초등학교장, 권기원 전 안동시청 세무과장, 권재환 서후면 전 이개리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사무국장 권순창

울산 동구종친회 정기월례회 겸 가을 야유회 개최

영원가든에서 오찬모습

안동권씨 울산 동구종친회는 권태봉 회장 부부를 비롯해 회원 부부동반으로 약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1월 11일 정기월례회 겸 가을 야유회를 다녀왔다. 오전에 간단한 산행을 하고 오찬을 하였으며 권원기 사무국장의 사회로 월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울산종친회 권혁환 사무처장 부부 울산청장년회 권명달 회장부부 권기대 총무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먼저 권태봉 회장은 인사말에서 초대손님에 대한 고마움을 전하였고 모처럼의 야유회인 만큼 종친회원들의 화합과 친목을 더욱더 돈독히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권재헌 수석부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권혁환 울산종친회 사무처장의 격려사와 권명달 울산청장년회장, 권기대 청장년회 총무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고 장소를 옮겨 회원들의 열띤 응원 속에서 족구시합을 끝으로 이날 행사를 마무리 하였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번 야유회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알차고 즐거운 시간이 되었으며 좋은 추억과 종친간의 결속을 다지는 하루가 되었다.

울산종친회 총무부장 권 응 목

권준수 행정고시 재경직 최종 합격

권준수(별장공파 38세, 1995년생)군이 행정고시 재경직에 최종 합격했다. 권군은 안동고등학교를 졸업(62회)하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다. 부친은 안동 율광건설주식회사(구 필성건설)를 운영하고 있다.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중국 옌안시장과 한중 지방정부 교류협의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은 25일 중국 옌안시를 방문해 쑨광링 옌안시장과 만찬모임을 갖고 한중 지방정부 교류 등을 협의했다.

이날 모임은 옌안시 자오위앤호텔에서 옌안시정부 초청 만찬 형식으로 이뤄졌으며, 중국 국제우호연락회(회장 천위안 전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에서 하정이 상무이사와 고훼이 주임, 이타오 처장 등 간부들이 함께 참석했다.

쑨광링 시장은 “옌안은 연간 5천만명이 방문하는 혁명 유적도시이기 때문에 한중도시우호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한국 지방정부와 교류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권기식 회장은 “마오쩌뚱과 시진핑 주석 등 중국 국가지도자들의 혁명 유적지가 있는 옌안시가 한국 지방정부와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왼쪽)이 25일 중국 옌안시 자오위앤호텔에서 하정이 중국국제우호연락회 상무이사(가운데), 쑨광링 중국 옌안시장(오른쪽) 등과 만찬모임 뒤 함께 사진을 찍었다.

권기식 회장과 하정이 중국국제우호연락회 상무이사 등은 2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식청년 시절 활동지인 량자허를 방문해 기념관 등을 참관했다.

안동원씨 마포종친회 강화도 야유회

강화도 전등사 주차장서 단체 기념사진 촬영

지난 11월 4일 마포종친회(회장 권승구)는 남녀족친 40여명이 관광버스 편으로 인천시 강화군 석모도 소재 보문사와 전등사를 탐방하면서 야유회를 가졌다. 권승구 회장은 목적지로 가는 도중 인사말을 통해 “바쁘신 가운데 이처럼 건강한 모습으로 많이 참가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우리 회원 중 노쇠하신 분은 거의 동참을 하지 못해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 아울러 전에는 관광버스 2대로도 모자랄 때가 있었는데 오늘은 너무 적은 인원이 참석했으니 회원 각자는 자녀들과 주변의 족친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월례회를 비롯한 종친회 행사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달라” 고 당부하였다. 일행은 강화도 본섬을 거쳐 새로 놓은 석모대교를 건너 보문사를 탐방한 후 외포리로 와서 서해 꽃게전문 식당에서 오찬을 한 후 전등사 탐방까지 마치고 서울로 돌아왔다.

마포종친회 권영관

권도영 문학박사학위 취득

권도영(42, 복야공파 37세, 사종 공정공계)씨는 한국외국어대학을 졸업한 후 일본 동경대학에서 국비장학생으로 6년간 수학한 끝에 2017년 5월에 문학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권도영씨는 경남 합천군 대병면 성리 출신이고 부친은 권해진(80세)씨이고 모친은 한숙남(70세)씨이다.

행주대첩제를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범국민 100만 서명운동

정당한 역사 재평가는 ‘나’ 부터 시작됩니다.

권율도원수 행주대첩제의 국가행사 격상은 정당한 역사 재평가

육지의 권율이 있었기에 바다의 이순신도 있을 수 있었습니다.

지역종친회를 중심으로 범국민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합시다.

1인당 100명 서명운동은 국가행사 격상의 초석이 됩니다.

가정, 직장, 동네, 동호회 등에 자랑스러운 권율도원수를 알리고 서명을 받읍시다.

안동권씨 대종회 회장 **권 해 옥**